



CJ라이온, 참그린 브랜드 리뉴얼 기념 즉석당첨 이벤트
 CJ라이온은 최근 참그린 브랜드(녹차·참숯) 리뉴얼 기념으로 1월31일까지 온라인 즉석당첨 이벤트를 연다. 네이버 검색창에 '참그린 브랜드'를 검색하고 즉석 당첨 확인 버튼을 클릭한 뒤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응모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르쿠르제 냄비(5명) 등 무제한 선물을 증정한다.

백종원 도시락 '나트륨 도시락'

도시락1개당 평균 나트륨함량 하루 섭취권고량 68%나 넘어 CU '백종원 매콤돈가스정식' 하루 나트륨 섭취권고량 넘겨



'백종원 도시락은 소금 덩어리?'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서울시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7월14일부터 8월22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20종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1366.2mg으로 WHO(세계보건기구)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2000mg)의 68.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상위 4개사가 판매하는 편의점 도시락을 5종씩 총 20종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각 도시락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면 195.0~429.0mg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CU '백종원 매콤돈가스정식(2099.6mg)'은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2000mg)을 넘어선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 | CU

100g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CU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429.0mg)'이었다. 이어 CU '백종원 한판도시락(380mg)', CU '달콤달콤해 소불고기(369mg)', CU '백종원 매콤돈가스 정식(362mg)', 세븐일레븐 '해리 비빔밥(360mg)'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CU 제품인 것이 눈에 띈다. 반면 100g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세븐일레븐 '김치제육덮밥(195.0mg)'으로 나타났다.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은 CU '백종원 매콤돈가스정식(2099.6mg)'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2000mg)을 넘었다.

서울시가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함량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나트륨 함량 조사를 정례화 해 편의점 업체의 나트륨 함량 인허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편의점 도시락 종류가 다양해지고 식사로 섭취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경제현장.jpg "호텔부터 한옥까지 실시간 예약하세요"... '여기어때' 종합숙박 O2O서비스



숙박 앱 '여기어때'가 종합숙박O2O 서비스 출범을 선언했다. 기존 호텔·모텔뿐 아니라 펜션, 게스트하우스, 캠핑·글램핑, 리조트, 한옥 등의 숙박 정보를 제공한다. 숙박 정보는 총 3만여 곳으로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제휴점은 1만곳 이상이다. 모델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양한 숙박 관련 정보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서비스 '종합숙박 O2O'를 소개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여기어때

롯데, IBM '왓슨' AI솔루션 도입... "5년내 전 사업분야에 구축"

고객서비스·전략수립 등에 활용

롯데그룹은 21일 한국IB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BM 클라우드 기반 인지 컴퓨팅 기술 '왓슨' 솔루션을 도입한다. IBM 왓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신뢰도 높은 상품정보, 전문성 있는 조언을 제공한다. 계획이다. 테마는 크게 두 가지로 '지능형 쇼핑 어드바이저'와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으로 나뉜다.

'지능형 쇼핑 어드바이저'는 챗봇(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유통 계열사에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스스로 상품을 찾

는 방식에서 벗어나, 챗봇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상품추천 및 매장 설명, 온라인 픽업 서비스 안내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은 제품 및 푸드 계열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된다. 왓슨을 통해 다양한 외부시장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매출, 제품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사업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롯데그룹 측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은 롯데정보통신이, 데이터 분석은 롯데멤버스가 맡는다"며 "향후 그룹 전체를 통합하는 IT서비스를 구축해 5년 이내에 전 사업 분야에 걸쳐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한국IBM Watson 2016년 12월 21일(수) 장소: 롯데... 각각 롯데그룹 운영실장(왼쪽)과 제이 벨리 시오 IBM 본사 총괄사장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홈플러스, 축구장 9배 크기의 파주운정점 오픈

홈플러스는 2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142호점 파주운정점을 오픈한다.

지난해 10월 영국 테스코에서 한국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후 처음 여는 매장이라 더욱 관심이 간다. 지하 3층~지상 6층, 연면적은 축구장 9배 수준인 6만6084㎡(2만평), 영업면적 2만2705㎡(6900평), 주차공간 900여 대로 파주 시내 대형마트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경기도 파주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서북부 최대 규모인 운정신도시가 2020년까지 총 9만여 가구, 27만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가 10조 원 투자로 확대 중인 파주공장을 통해 향후 35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전망되는 등 신규상권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은 생활밀착형 '제2차 유통전쟁'이 예고되는 곳이다. 이중



홈플러스 파주운정점 외관. 사진제공 | 홈플러스

운정신도시에는 파주 전체 어린이집의 약 37%, 사설학원의 약 95%가 밀집해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유아동과 20~30대 부모들 비중이 높은 '젊은 도시'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패션·편의·식품 브랜드를 합리적 가격에 즐길 만한 윌스톱 쇼핑채널이 없었다. 이에 홈플러스는 파주운정점을 기존 대형마트의 틀을 벗어나 아이들과 2030세대의 교육·문화·편의·쇼핑 니즈를 채워주는 복합쇼핑몰 형태로 재편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카드-전북은행 'JB뱅크론' 개발 우수회원대상 저금리 신용대출 협약

현대카드가 전북은행과 맞손을 잡고 현대카드 우수회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 'JB뱅크론'을 개발한다.

이 회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 JB금융지주 본사에서 전북은행과 'JB뱅크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현대카드는 고객에게 은행권의 저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전북은행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됐다. 향후 양사는 내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연계 영업을 효율화하고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카드 측은 "은행권의 좋은 상품을 현대카드만의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해 우량고객의 금융경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식음료

수첩을 펼칠때마다 생각나는 그 향기...

커피전문점 뜨거운 '플래너마케팅'

스타벅스, 몰스킨 협업제작 호응 커피전문점 옥스포드 원단 사용 "친밀감 형성돼 매장문 효과 크다"

연말 시즌을 맞아 커피전문점들의 플래너 마케팅이 한창이다. 커피에 어울리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면서 자사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플래너를 선보이고 있다. 해마다 품귀 현상을 빚는 스타벅스 플래너를 비롯해 대표 커피전문점 6곳이 선보인 플래너 종류와 특징을 살펴봤다.

●스타벅스 플래너 왜 인기인가?

커피전문점 플래너 이벤트의 대표주자는 스타벅스이다. 지난 2004년 업계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고객 사은 증정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스타벅스의 플래너가 인기인 이유는 플래너 자체의 높은 완성도에 있다. 스타벅스 플래너는 전담 직원이 3월부터 기획을 시작한다. 지난해 플래너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 검토를 한다. 트렌드 수집을 위한 국내외 출장 업무를 진행하며, 플래너 공간을 찾아가 제작 공정을 직접 확인한

다. 최종 확정되는 플래너가 나오기까지 약 200여권의 디자인과 품질을 검수하는 꼼꼼한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다. 올해 플래너는 이탈리아 수첩 브랜드 몰스킨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소비자들이 꼭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다. 플래너 안에는 최대 1만7200원의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3장도 함께 제공한다.

컬러마케팅도 신의 한수다. 스타벅스는 올해 블랙, 레드, 핑크, 민트 색상의 다이나믹 4종을 선보였다. 블랙과 레드에는 현금(3만2500원)으로도 구매 가능하지만 핑크와 민트는 행사 기간 동안 17잔을 마셔야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품귀 현상을 빚었다.

스타벅스는 플래너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플래너를 소지한 고객은 1년 동안 스타벅스 브랜드와 친밀감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 일방적이며 단순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재방문과 함께 집객 효과와도 연결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의 커피전문점 플래너 특징은?

커피전문점은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한 '2017 커피플래너' 4종을 출시했다. 블랙, 골드 옐로 색상의 라지 사이즈 2종과 블랙, 레드 색상의 스몰 사이즈 2종 등 총 4가지 타입으로 선보였다.



'스타벅스 플래너'는 한국 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3월부터 제작을 준비하고, 약 200여권의 플래너 디자인을 일일이 검수해 결정한다. 사진제공 | 스타벅스코리아

커피빈 매장에서 선불카드 6만원 이상 충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7 플래너 1종을 무료로 증정한다. 별도 구매를 원하면 1만9800원에 살 수 있다. 다이어리 안에는 최대 7000원짜리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음료 교환권' 1장이 들어있다.

할리스커피는 미드나이트 그레이와 샌디 그레이 총 2종으로 구성된 플래너를 선보였다. 겨울 시즌 메뉴 2개와 일반 음료 5개 등 총 7개의 메뉴를 구매하는 멤버쉽 고객에게 무독성 인증을 받은 다이어리 커버를 사용한 '2017 할리스커피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다이어리 안에는 최대 1만7300원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쿠폰 4장이 들어있다.

투썸플레이스는 2017 플래너 2종을 선보였다. 이탈리아산 커버에 붉은색과 회색을 혼용한 디자인을 적용해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플래

너 구입 고객에게는 복유업을 대표하는 스웨덴 필기구 브랜드 발로그라프와 협업·제작한 에포카(EPOCA) 볼펜을 추가 증정한다. 가격은 2만4000원이다.

탐앤탐스는 블랙, 그레이, 핑크, 레드, 화이트 등 5가지 색상의 2017년형 플래너를 출시했다. 양장 제본이라 180도 펼쳐서 사용하기 있어 편리하다. 9800원에 판매하며 탐앤탐스에서 구매하면 드링크자 노트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카페베네에서는 세계적인 캐릭터 '일리' 일러스트를 활용한 플래너를 선보였다. 깔끔한 흰색 커버의 다이어리와 함께 전용 파우치, 코스터(컵받침), 머플러(워밍업)로 구성된 증정품이 세트에 제공된다. 월리 일러스트가 그려진 코스터와 머플러는 사무실이나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가격은 1만6500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코카콜라 새해 광고모델로 '박보검'



코카-콜라가 다가오는 2017년을 앞두고 새해 첫 캠페인 광고 모델로 배우 박보검을 발탁했다. 코카-콜라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코카-콜라의 혁신적인 패키지를 통해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코카-콜라 새해 캠페인이 전하고자 하는 짜릿한 즐거움 및 함께하는 행복, 따뜻한 감성을 알리기 위해 '감사의 아이언' 박보검을 선택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실력, 외모, 인성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주고, 주변인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박보검의 모습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코카-콜라의 새해 첫 캠페인과 잘 부합해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리아-메시코리아 배송 계약

롯데리아가 지난 20일 서울 갈월동 본사에서 IT 물류 스타트업 기업 '메시코리아'가 운영하는 이륜차 물류망 '부릉'을 활용한 배송 대행 서비스 도입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륜차 물류망 '부릉'은 일괄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첨단 IT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 수행과 함께, 자동주행연동시스템을 통해 주문 과정의 간소화로 배송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는 배달 대행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리아는 '부릉'을 통해, 신속한 배달 서비스 제공 및 배달 서비스 지역 확대 등으로 주문 고객 대상 배달 서비스를 개선한다. 배달 전문성 강화와 매장별 배달 직원 채용의 안정화와 함께 가맹점의 이익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냉장컵면 5종 출시



CJ제일제당이 정통 면 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장 컵면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냉장 컵면은 일본 육개장면, 얼큰 짬뽕, 스윗 토마토 스파게티, 정통 중화 짜장면, 칠판 볶음면 등 총 5종이다. '면' 자체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가 잘 조리한 듯한 면발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했다. 다시마 육수를 넣어 면을 반죽해 면 자체의 맛을 살렸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쪄내어 면발이 탱글탱글하다. 또한 바람 건조 냉각기 '메시코리아'가 운영하는 이륜차 물류망 '부릉'을 활용한 배송 대행 서비스 도입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륜차 물류망 '부릉'은 일괄적인